

종합·해설

■ 지방선거 핫코너

“전남지사 경선 4월10일이후에 치러야”

주승용·이석형 후보 주장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왼쪽)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도지사 경선 날짜를 3월28일로 정한 데 대해 “현행 선거법상 TV토론은 4월2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전남지사 경선 시기를 4월10일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 후보를 선출 하면서 당원과 주민 의사 반영,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라는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며 “도민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TV토론을 최소한 2~3회 한 뒤에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법적으로 보장된 TV토론은 물론 흥행에 필요한 순회유세,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이



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4월 10일 이후 경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선방식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현재 각 언론매체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며 “도민 의사를 여론조사만으로 50%를 반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여론조사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는 피하는 것이 옳다”면서 “권역별 순회 경선은 활력을 불어넣고 선거인단의 정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용 “개혁후보 단일화 추진”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시민의 뜻에 거스르는 민주당에 맞서 개혁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와 민주적 지방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북구 운암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가정) 2010 광주희망연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영기 선거사무실 개소식

홍영기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5일 오후 2시 목포시 상동 신세계빌딩 1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와 지지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개소식에서 “민주당의 상징적 지역인 목포에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목포를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할 예정이다.



박석배 신안군수 출마 선언

박석배 신안지역 경제활성화 연구소 원장은 3일 오후 2시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신안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사는 고령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사람을 키우는 신안, 과감한 인사개혁 등 4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강기수 서구청장 출마 선언

강기수 민주당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간의 일당독주를 막고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시대를 만들겠다”며 광주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식 도의원 출마 선언

이충식 박준영 전남도지사 비서관은 2일 도청기자실에서 6·2 지방선거 장흥 제1선거구 공약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비서관은 “장흥의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쌓은 인맥을 활용해 도청과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 관공위 교육의원 선거 설명회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관공위 4층 회의실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에 대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정치자금 및 제한·금지 규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답변 등으로 이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원필기자 wncho@kwangju.co.kr

이동관 수석 “첨단의료복합단지 TK 특혜” 발언 일파만파

광주·대전 등 탈락지역 반발 확산

광주시장 후보들 “MB 사과·재검토를”

여권선 지방선거 약재 될라 전전긍긍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수석의 언급이 ‘이 대통령이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면서 당시 유지 경쟁에 나섰으나 탈락한 광주·전남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노 전 대통령 추모집 출판기념회.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인 모임인 ‘청정회’(회장 이용섭 의원) 회원 23명이 공동집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 ‘남은 값지만 보이기 바랍니다’ 출판기념회가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메리어트웨딩홀에서 참여정부 인사 및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해기기자 choi@kwangju.co.kr

이 수석의 ‘TK 특혜 발언’이 ‘세종시 수경’ 논란에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약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수석이 ‘마사지’ 발언과 ‘국민투표’ 논란 등에 이어 이번에는 TK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동관 수석은 이날 자신이 “TK(대구·경북) ×들, 정말 문제 많다”고 막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북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일보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경북일보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여권에서는 이 수석의 ‘TK 특혜 발언’이 ‘세종시 수경’ 논란에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약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수석이 ‘마사지’ 발언과 ‘국민투표’ 논란 등에 이어 이번에는 TK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덕성이 자치 일꾼 최고 자질”

‘광주 희망과 대안’ 좋은후보 공개 모집 나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후보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 희망과 대안’은 3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후보’ 선정기준과 방식을 공개했다. 공역·기초단체장의 좋은 후보 선정 제1기준은 ▲병역의무 ▲전과 내역 ▲재산형성의 투명성 ▲4대 보험 납부 내역 등의 도덕성이 우선되며, 제2기준은 ▲중장기 비전 등 정책분야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등 자질분야 ▲시민과의 소통, 광주정신 계승 등 개혁 청렴성 등 13개 분야로 이뤄졌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정은 도덕성과 의정활동 등 정책분야와 자질, 개혁 청렴성 등 9개 분야의 평가지표로 이뤄진다. 희망과 대안은 제1기준 항목 중 1개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보와 제2기준 항목 중 2개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후보는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선정방식은 객관성을 위해 단체 회원과 시민배심원 50%가 참여하는 100명의 좋은 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차 심사를 하고, 선정위가 추천한 후보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희망과 대안은 오는 15~16일 서류를 받으며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좋은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오늘까지 사직해야

군수·군의원 출마자도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인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인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인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이다. 또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군수·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도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 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연설회, 투표감독관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 등 일체의 의정활동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 연극, 영화 등의 광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광고출연 등이 금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다공인중개사 (063)581-5909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위치: 화순읍 전대평리안산부근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중 실업자 및 계약제 대상: 실업자 야간대상 등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의정보고서 대항현수막 간판/현판 공약집 배포 어개띠 광고대행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라수원, 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